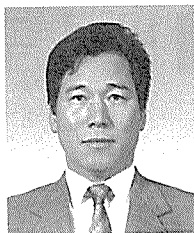


情報産業의 새로운 흐름

현재 구미의 정보산업은 또 하나의 새로운 혁명의 시발점에서 있다고 한다. 이를 흔히들 '다운 사이징'이라 부르고 있는데, 몇년 전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증권회사들이 종전에는 주로 공학용으로 사용되어지던 워크스테이션을 증권거래시스템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 기원이다. 워크스테이션의 강력한 처리속도와 그래픽 기능이 증권거래업무에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.

그러나 당시 워크스테이션을 기업 전체의 정보시스템을 일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던 것이 근자에 들어서는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. 주로 개방형 OS인 UNIX와 RISC 기술을 채택한 워크스테이션은 분산처리의 일종인 CLIENT/SERVER 구조를 통해 더이상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메인프레임에 저장해 놓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내기 시작한 것이다. 그러자 수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은 메인에서 운용하되 신규개발 수요는 모두 COST/PERFORMANOCCE가 높은 워크스테이션나 서버로 해결하거나 기존 애플리케이션까지 워크스테이션으로 옮겨가고 있다. 이것이 다운 사이징현상이다.

그런데 이 다운 사이징의 이면에는 하드웨어 기술의 눈부신 진보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. 얼마전 세계 유수의 시티은행이 트레이딩 시스템을 기존의 1천4백만달러짜리 메인프레임



劉鍾吉
한국인포넷 대표이사

에서 워크스테이션으로 교체했는데 단지 50만달러가 소요됐다고 하다. 그리고 더 빠르고 편리하다고 한다. 95퍼센트의 비용이 절감된 셈이다. 거기에다 UNIX를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메이커에 대한 종속도도 대폭 낮아졌다.

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에는 5G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. 다 외우고 있진 못하지만 워크스테이션의 성능이 GIPS, GBYTE, GBPS 등등 거의 사용자 측면에서는 용량의 제한을 느낄 수 없는 시절이 이제 불과 10년 미만의 세월내에 다가올 것이라고 한다. 그때가면 애플리케이션도 지금의 수십배의 시스템리소스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겠지만 그만큼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질 높은 정보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.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컴퓨터의 혁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겨본다.